

# 편치홀 디스플레이·후면 4800만 화소... 최대 변수 '가격'

## 애플 아이폰14시리즈 공개 D-1

‘저 너머로’ 주제 아이폰 등 신제품 기본·맥스·프로·프로맥스 4종 유력 연고점 환율... 국내가격 관심 집중

삼성전자의 4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가 전작 시리즈의 명성을 글로벌 흥행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 공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갤럭시 Z4’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삼성의 행보와 고환율 상황이 겹쳐 애플이 긴장할지, 반대로 프리미엄폰 시장 1위인 애플이 이번 신작 발표를 통해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애플은 한국시각 기준 8일 오전 2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4 시리즈와 애플워치8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이 ‘저 너머로(Far out)’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이벤트는 1년만의 아이폰 신작 공개인 만큼 기기 디자인과 카메라 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아이폰14 예상 이미지

/맥루머스(MacRumors)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아이폰14는 전면 디스플레이의 ‘M 자 탈모’가 사라지고 카메라 기능은 대폭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알려졌다. ‘M 자 탈모’는 노치는 상단 일부를 비워 카메라를 배치한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로, 2017년 출시한 아이폰X부터 이후 출시한 아이폰XS, 아이폰11, 아이폰12, 아이폰13까지 적용됐다. 5년 동안 아이폰 시리즈에서 유지됐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강한 디자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미 삼성이 ‘편치홀 디스플레이’를 2018년 12월 ‘갤럭시A9 프로’ 모델부터 선보인 터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애플이 또 좋은 건 따라한다”, “노치 없어도 더 예뻐 듯, 구매욕구가 일어난다” 등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편치홀 디스플레이’는 카메라 구멍을 제외한 전면이 모두 디스플레이라 폴스크린으로 기기 전면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이폰을 선택하는 핵심으로 꼽히는 카메라 성능은 후면 메인 카메라가 1200만에서 4800만 화소로 대폭 상향할



애플 행사 초대장

/애플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Z 폴드4의 전면 카메라가 400만 화소이고, 후면 메인 카메라가 5000만 화소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화소지만 화소만으로 양사의 두 시리즈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용자들도 양사의 화소뿐만 아니라 색감, 망원, 와이드 기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과 바이오닉의 승부가 될 전망이다. Z4 시리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플러

스 1세대가 적용됐고 아이폰14 시리즈에는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인 A15·16 바이오닉이 동시 적용된다. 애플의 ‘아이폰14’ 시리즈는 기본·맥스·프로·프로맥스 등 4개 모델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데, 이 중 하위 모델로 분류되는 아이폰14 기본과 맥스 모델에는 아이폰13 시리즈와 같은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고, 상위모델인 아이폰14 프로와 프로맥스에는 A16 바이오닉 칩이 각각 AP로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 전작인 아이폰13 프로맥스 모델의 싱글코어가 1728점, 멀티코어가 4790점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최신 칩을 탑재하는 ‘아이폰14’ 시리즈의 상위모델이 프로세서 성능 면에서는 삼성 Z4 시리즈 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선호도와 기기 간의 스펙을 비교하는 것도 유의미하지만 결국 ‘제품가격’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6일 오후 2시 기준 1375원을 넘어서면서 1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경신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소재 칫솔 개발

국내 최초

KNK 협업... ‘이음’ 플랫폼 성과 창출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활성화 노력’

SK케미칼이 플라스틱 순환생태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음’ 플랫폼을 통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SK케미칼은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6일 SK케미칼은 칫솔전문기업 KNK와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칫솔을 공동개발한다고 밝혔다.

‘화학적 재활용(CR, Chemical Recycling) 플라스틱’이란 폐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 다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상용화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SK케미칼은 올해 6월 소재 생산업체와 플라스틱 성형업체·브랜드와



헤드업 타입의 칫솔대 컨셉 디자인 /SK케미칼

너사 등을 온라인으로 이어주는 순환생태계 플랫폼 ‘이음’을 열고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과 함께 재활용 소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용기 및 제품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린소재 전환에 잠재력이 있는 시장과 용도를 발굴하고 용도에 적합한 SK케미칼의 그린 소재와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월 3개월 만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NK와의 협업은 이음 플랫폼

의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화학적 재활용 ‘에코트리아(ECOTRIA) CR’ 소재를 도입하고 칫솔모가 있는 머리 부분의 위생성과 손잡이 부분의 편의성을 강화한 디자인을 제안했다. 양사는 기존 친환경 칫솔 소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욕실 환경 및 사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강기태 KNK 사장은 “이음 플랫폼의 소재 추천과 디자인 컨셉 제안 등의 도움을 받아 매우 신속하게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화학적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자체 브랜드도 만들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준 SK케미칼 신사업개발실 실장은 “플라스틱 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재활용 소재 경험을 제공해 플라스틱 순환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4척 1.1兆 수주

삼성중공업이 총 1조1600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와 아프리카 선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각각 2척씩 수주했다고 6일 공시했다. 총 4척의 수주액은 1조1651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해누계 수주 실적을 37척(LNG운반선 28척·컨테이너선 9척), 72억달러로 늘리며 연간 목표치 88억달러의 82%를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 하반기 공채 진행... 20개 계열사 참여

14일까지 삼성커리어서원서 접수

삼성이 청년 일자리 확대 작전을 시작한다.

삼성은 6일부터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4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9월 직무적합성검사와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GSAT은 올해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김재용 기자

이번 공개 채용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생명 등 2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한지 66년째로, 5세대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다.

삼성이 앞으로 5년간 8만명 규모 채용을 약속한 이후에는 첫 공채다. 앞서 삼성은 지난 3년간 4만명을 채용하며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채부터 채용 인원을 더 확대하며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 아우디, ‘Q4 e-트론 40’ 시리즈 공개

첫 컴팩트 세그먼트 순수 전기차 복합 357km 주행... 6000만원대

소형차 크기에 중형차 수준 실내 공간을 갖춘 럭셔리 전기차 6000만원대에 출시됐다.

아우디코리아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더 뉴 아우디 Q4 e트론 시리즈를 공개했다.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Q4 e트론은 아우디의 첫 컴팩트 세그먼트 순수 전기차다. 폭스바겐그룹의 MEB 플랫폼을 적용했으며, 82kWh 배터리를 통해 복합 357km를 달릴 수 있다.

전장이 4590mm로 A세그먼트와 비슷하지만, 운전석에서 2열 헤드레스트까지 길이가 1830mm로 중형 SUV인 Q7 수준이라는 게 아우디 설명이다. 여기에 동력 구조를 단순화해 센터 터널을 없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실내 인테리어는 여느 럭셔리 모델 못지 않다. 시프트 패들을 포함한 스티



임현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뉴 아우디 Q4 e트론 앞에서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어링 휠과 2열 폴딩시트, 엠비언트 라이트와 스포츠 시트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첫 한국인 대표인 임현기 사장도 처음 공식 석상에 섰다. 임 사장은 Q4 e트론이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에 다양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우디 Q4 e트론40은 Q4 스포트백 e트론40과 함께 출시된다. /김재용 기자 juk@

## LG전자 ‘라이프이즈굿 어워드’ 개최

더 나은 일상 위한 아이디어 공모

LG전자가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LG전자는 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라이프이즈굿 어워드’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라이프이즈굿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 나은 일상을 만들고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을 위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면 된다.

LG전자는 총 100만달러 상금을 걸고 최종 3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3에서 소개한다.

비영리 기관 비랩코리아도 함께한다. 예산 심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본선 심사는 글로벌 ESG 분야 교수진과 LG전자 경영진으로 구성된 ‘라이프이즈굿 위원회’가 맡았다.

LG전자는 이 어워드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회사 브랜드 철학인 ‘Life’s Good’의 지향점처럼 모두가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길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